

漢代의 太子教育*

이 경 자**

<목 차>

1. 머리말
2. 한대 太子의 책봉
3. 한대 太子의 師傅
 - 3.1 師傅의 직책
 - 3.2 師傅의 선발
4. 한대 太子의 교육내용
 - 4.1 太子교육의 중요성
 - 4.2 太子의 교육내용
5. 맺음말

1. 머리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배양하는데 일찍부터 힘써 왔다. 왕위 계승자에 대한 명칭 및 제도, 교육내용 등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위 계승자는 ‘太子’라고 부른다. 태자는 시대마다 ‘東宮, 世子, 儲君, 皇儲, 君嗣, 國嗣, 殿下’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렸지만, 모두 황제 또는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태자나 황제를 가르치던 사람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通典·職官》에

* 이 연구는 2015년도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따르면 “태자의 사, 보, 이부가 은주시대에 이미 있었다.”는¹⁾ 기록으로 보아 통치자 양성을 위한 제도가 적어도殷나라와 周나라시대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주시대에는 太師, 太傅, 太保를 두기도 하였다. 통치자를 양성하는 제도는 春秋와 戰國을 이어 秦漢 이후 상당히 완비되었다. 이후 西晉 시대부터 太子 太師, 太傅, 太保, 少師, 少傅, 少保를 두었는데, 이를 ‘三師三少’라고 불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여섯 관리를 모두 둔 왕조는 거의 없었고 일반적으로 태부와 소부 두 직책을 두었다.

태자의 책봉은 왕조의 흥망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였다. 그러므로 태자 책봉 이후 태자교육은 중국 역사 이후 상당히 중시되었다. 하지만 태자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었다.

고대에 태자의 사부는 태자에게 주로 禮樂을 전수했다. ‘禮’는 몸가짐을 수양하는 것이고 ‘樂’은 마음가짐을 수양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禮樂을 통해 태자를 공손하고 어진 사람으로 길러내는 데 있었다.²⁾ 秦과 漢代에 이르러 황제 제도가 정착된 이후 예악 중의 ‘樂’은 이전만큼 중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태자의 사부는 주로 태자에게 군신과 부자의 도리를 가르쳤다.³⁾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한대는 태자교육에 대하여 연구하기 적합한 시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자교육이 제대로 시작한 시기이다. 황위계승제도인 東宮제도가 정식으로 세워진 시기로서 통치자 양성에 주력하여 태자교육을 중시하였다. 秦나라 때 황제제도가 실시된 후 ‘태자’가 황위계승자의 정식 칭호가 되었는데, 漢惠帝 劉盈은 태자교육 제도가 성립된 이후 혜택을 받은 최초의 태자이기도 하다. 둘째, 한대는 앞서 三代의 성공과 秦의 패망을 거울 삼아 이들 국가의 성패는 태자교육에 있다고 보고 태자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1) 《通典·職官》: 太子師保二傅, 殷周已有.

2) 《通典·職官》: 凡三王教世子, 必以禮樂. 樂所以修內, 禮所以修外, 禮樂交錯于中, 發形于外, 是故其成也?

3) 三師, 三少의 아래에는 太子賓客, 太子詹事, 中庶子, 太子中允, 太子洗馬, 太子舍人 그리고 太子府의 관리와 보위를 책임지던 太子家令, 衛率 등이 있었다. 태자의 사부에서 太子舍人까지 공통적인 사명은 모두 학문 전수와 덕성 수양이었다. 이렇게 많은 관리를 배정한 것은 태자에게 뛰어난 사람들로 둘러싸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징륜 지음, 이영욱 옮김, 《중국의 황태자 교육》(파주: 김영사, 2007, 78쪽.)

기울었다. 그래서 약 400년간 지속된 漢代에는 西漢 15명, 東漢 14명 총 29명의 황제가 있었는데,⁴⁾ 한대의 태자는 모두 師를 두었으며, 이들은 주로 학식이 박학하면서 품행 및 도덕수준이 높았다. 셋째, 태자교육의 체계와 방향을 잡은 인물과 기록이 있다. 한대에 태자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말한 사람은 賈誼이다. 賈誼는 당시 뛰어난 학자로 문제의 아들인 梁王의 太傅이기도 하다. 그는 “천하의 명운은 태자에게 달려 있고 태자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과 좌우에서 보필하는 인재를 잘 뽑는데 달려 있다.”⁵⁾ 하며 태자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태자교육을 태교, 조기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와 그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한대의 태자교육을 연구하는 본고에서도 자연스럽게 賈誼의 글과 주장을 많이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앞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한대의 교육을 다룬 연구로는 이경자의 <漢代의 孝教育 연구>⁶⁾와 <漢代《孝經》 보급의 교육적 의의>⁷⁾, <中國 漢代의 太學教育 연구>⁸⁾가 대부분이다. 태자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드물고, 관련 서적으로는 왕징륜의 《중국의 황태자 교육》⁹⁾ 정도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상 한대의 태자교육에 대한 비판과 가치에 앞서, 한대 태자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대를 통해 태자교육의 정착과 교육 내용을 비롯하여 태자교육을 담당하던 師傅의 실태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대 태자가 어떻게 책봉되었으며 태자의 교육을 맡은 太傅, 少傅 등이 어떻게 선발되고, 이들이 태자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한대 이후 청대까지 영향을 미친 儒家의 정치철학과 이를 토대로 태자교육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西漢과 東漢 사이에 王莽이 세운 新 나라가 존속하기도 했지만 劉秀, 즉 光武帝에 의해 멸망하고 곧 東漢이 세워졌다.

5) 《新書·保傅》: 天下之命, 縣於太子. 太子之善, 在於蚤諭教與選左右.

6) 이경자, <漢代의 孝教育 연구>, 《教育問題研究》, 2005.

7) 이경자, <漢代『孝經』 보급의 교육적 의의>, 《教育問題研究》, 2009.

8) 이경자, <中國 漢代의 太學教育 연구>, 《比較教育研究》, 2006.

9) 왕징륜 지음, 이영옥 옮김, 앞의 책, 2007.

2. 한대 太子의 책봉

‘太子’란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의 계승자를 말한다. 周代에 천자 및 제후의 적장자를 ‘太子’ 또는 ‘世子’라고 부르다가 秦代에 황제제도가 성립된 이후 황태자는 황위 계승자를 칭하는 정식 칭호가 되었다. 한대에 이르러 천자를 황제라 부르고 황제를 계승할 사람은 ‘황태자’라 불렀다.¹⁰⁾ 장차 왕위에 오를 태자를 선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왕조의 흥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賈誼는 왕위 계승자를 선발할 때 후계자를 미리 세우기보다 적장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친척과 형제가 싸우지 않고 천하를 바로 세우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도 일찍이 언급하였다.

위세가 명확해지면 백성들이 안정되고 道가 한 곳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재상이 되고자 다투지 태자가 되려고 다투지 않는다. 이는 재상의 자리가 존귀하고 세자의 자리가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智慧로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힘으로 다투어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아버지만큼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부왕이 병들어 죽을 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부왕의 마음대로 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친척들로 하여금 서로 친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며 천하의 기강을 어지럽혀 천하의 풍속을 잃게 하며 존경해야 할 바를 잃고 양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되는 길로는 이보다 더 빠른 것이 없다. 부왕이 병들어 죽은 후에 (왕위 계승자가) 적장자가 되니 이와 같이 하면 친척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다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천하에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백성들은 왕궁의 주군 집안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투지 않게 된다.¹¹⁾

10) 본 연구에서는 황태자라는 명칭이 한대에 사용되었지만 태자 또는 황태자의 용어가 혼용되었기에 한대 및 한대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된 ‘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단 원문 해석의 경우에는 원문대로 그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가의의 《新書》에서도 태자, 세자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데 원문에 따라 그 명칭을 그대로 두고자 한다.

11) 《新書·立後義》: 夫勢明, 則民定, 而出於一道, 故人皆爭爲宰相, 而不姦爲世子. 非宰相尊而世子卑也, 不可以智求, 不可以力爭也. 今以爲知子莫如父, 故疾死置後者, 恣父之所以, 比使親戚不相親, 兄弟不相愛, 亂天下之紀, 使天下之俗失, 明尊敬而不讓, 其道莫經於此. 疾死置後, 以嫡長子, 如此則親戚相愛而兄弟不爭, 此天下之至義也. 民之不爭, 亦惟學王宮國

賈誼의 지적처럼 태자의 자리는 智慧로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태자의 자리는 국가의 존망과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므로 태자책봉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고 태자의 책봉의 식과 그에 대한 예우도 중시했다. 賈誼는 이러한 의식과 예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옛날 성왕이 장차 세자를 책립하고자 할 때 제왕 자신이 조복을 입고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가 서쪽으로 왕비를 향해선다. 왕비는 세자를 안고 방에서 나와 동쪽을 향하여 선다. 세자가 조서를 받들고 서쪽으로 당에 올라가 동쪽과 서쪽의 양쪽 계단 사이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서, 세자 이름을 세 번 말한다. 제왕이 예법에 따라 치사를 하고 세자에게 명하여 “태조와 태종과 사직을 아들에게 전하노라.” 고 세 번 말한다. 제왕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 왕비는 (세자를 대신하여)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두 번을 아뢰고 세 번째 명령이 내리면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배례하고 물러간다. 태사가 태축에게 알리고 태축은 이를 태조와 태종 그리고 사직에 고한다. 태사가 밖으로 나가 이를 태재에게 고하고 태재는 이를 주백에게 고하며 주백은 이 일을 전하는 문서를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귀족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남자건 여자건 감히 세자와 이름을 같이 쓰는 자가 없도록 한다.¹²⁾

태자로 간택을 받기 위한 태자 후보의 자격도 정해져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황제의 친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황제에게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支子孫 가운데 선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대의 왕들이 모두 이 조건에 의해 선발된 것은 아니다.

安作璋과 秦永州¹³⁾ 이러한 태자 책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적장자를 세울 때는 연장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장자는 황제

君室也. 이하 《新書》에 대한 해석은 賈誼지음, 박미라 옮김, 《신서》, 서울: 소명출판, 2007를 참조해서 원문과 대조하여 일부 수정했음을 밝힌다.

12) 《新書·立後義》: 古之聖帝, 將立世子, 則帝自朝服, 昇自阼階上, 西鄉於妃. 妃抱世子自房出, 東鄉. 太史奉書西上堂, 當兩階之間, 北面立, 曰世子名曰某者參. 帝執禮稱辭命世子曰度太祖, 太宗與社稷於子者參. 其命也妃曰不敢者再. 於三命曰謹受命, 拜而退. 太史以告太祝. 太祝以告太祖, 太宗與社稷. 太史出, 以告太宰, 太宰以告州伯, 州伯命藏之州府. 凡諸貴已下, 至於百姓, 男女無敢與世子同名者.

13) 安作璋, 秦永州, <東宮制度考述>, 《山東師大學報(社會科學版)》(1986年 第4期, 1-3頁).

의 본부인 황후에게서 난 아들로 이를 태자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주시대 종법제에서 나온 것으로 적장자 혹은 적자가 계승하는 제도에서 나온 것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적장자의 아들이 계승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태자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왕의 자손들 중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 받기에 실제로 적장자가 부적합하거나 부재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의 명에 따라 정치에 마음을 두고 정사에 임한 사람이다. 서한의 賈誼는 “천자의 명운은 태자에게 달려 있다.”¹⁴⁾ 했듯이 태자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지혜로운 통치자는 오랫동안 편안하게 정치를 하기 위해 종종 적장자를 태자로 삼지 않고 제후들의 아들 중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태자로 선발하였다. 황제에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황족 중에서 현자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漢宣帝 劉詢, 漢哀帝 劉歆, 漢平帝 劉衍 등은 모두 황족 중에서 태자를 선발하였다. 셋째, 사직자로 나라에 공이 있는 자이다. 그밖에 각 시대마다 태자 책립에 있어 적장자만을 세우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예외의 상황을 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태자 책봉 이후 태자는 황제 다음가는 지위를 가졌다. 조정에서는 태자를 위해 太子府를 설치하고 관리를 배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록 태자가 법적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덕과 재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폐위도 가능했다. 朱慈堯·張新濟·張新羽는 태자가 폐위되는 경우를 몇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덕과 재능을 겸비하지 못해 황제를 계승하지 못할 경우 현자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東漢 章帝는 태자 慶을 폐위시켰다. 둘째, 태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폐위되었다. 漢武帝는 원래 据를 태자로 삼았으나, 江充이 태자를 모함하여 태자가 폐위되었다. 그 후 무제는 弗陵을 태자로 삼았다. 셋째, 제왕이 그의 비를 너무 사랑하여 원래의 황후를 폐출시키고 태자도 폐출되는 경우이다. 東漢 光武帝의 폐비 郭后는 황후의 자리를 벗어나고 태자의 자리도 내주었

14) 《漢書·賈誼》: 天子之命, 懸于太子. 이와 같은 내용은 가의의 《新書·保傳》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다. 넷째, 대신이 권력을 농락하여 태자를 폐출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경우이다. 다섯째, 황제 자식들 간의 권력싸움으로 인해 태자가 바뀌는 경우이다.¹⁵⁾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황제의 의견과 불일치하거나, 정사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폐출하였다. 예를 들면 서한의 선제는 태자 劉爽과 사람을 고용하는 일과 치국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 태자를 폐출하였다.¹⁶⁾ 또한 황제의 자식 중 그 아버지가 천하를 쟁탈하거나 외환내란을 일으키면 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지 않았다.

태자의 책립도 왕의 집권시기마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듯이 태자 폐출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 태자에 대하여 제한된 후보군을 두었음에도 한대의 왕위계승은 장자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보다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태자 책봉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한대에 태자 책봉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난 뒤, 태자를 세우는 것은 국가정권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賈誼의 지적처럼 태자의 자리는 지혜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자리이기에 태자의 책봉을 둘러싼 문제는 오랜 중국의 역사에서 청조를 제외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 태자의 입장에서는 책봉이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태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태자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큰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태자의 사부였다.

15) 朱慈堯·張新濟·張新羽, <中國東宮制度考析>,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1987年第3期, 96頁).

16) 安作璋, 秦永州, 앞의 논문, 3頁.

3. 한대 太子의 師傅

3.1 師傅의 직책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한 개인의 발전과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교육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이 올바르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태자의 교육에서 사부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부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역사상 태자를 교육하고 배양하는 제도는 매우 일찍 시작되었는데 늦어도 周代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新書·保傅》에서 알 수 있듯이 周公이 成王의 태부가 되었는데,¹⁷⁾ 이는 이후 군주교육의 본보기가 되어 師保제도 혹은 保傅제도가 마련되는 토대가 되었다. 《漢書·賈誼傳》에는 “옛날 성왕이 강보(아주 어렸을 때)에 있었을 때 소공이 태보가 되고, 주공이 태부가 되고, 태공이 태사가 되었다”고 했다.¹⁸⁾ 賈誼의 《新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옛날 주나라의 성왕이 강보에 싸인 어린아이였을 때, 소공이 태보가 되고 주공이 태부가 되고 태공이 태사가 되었습니다. ‘保’라는 것은 태자의 신체를 보존하고, ‘傅’라는 것은 태자의 德義를 펴고, ‘師’는 가르치고 훈계해서 태자를 인도하니 이것이 삼공의 직책입니다. 이에 태자를 위해 삼소를 두었는데 모두 상대부 들로서 소보, 소부, 소사라고 부르며 늘 태자와 함께 거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¹⁹⁾

賈誼의 지적처럼 고대 여러 문헌에는 삼공으로 太師, 太傅, 太保를 언급하였

17) 《新書·保傅》: 周成王幼在襁褓之中, 召公爲太保, 周公爲太傅, 太公爲太師.

18) 《漢書·賈誼傳》: 昔成王幼在襁褓之中, 召公爲太保, 周公爲太傅, 太公爲太師.

19) 《新書·保傅》: 昔者, 周成王幼在襁褓之中, 召公爲太保, 周公爲太傅, 太公爲太師. 保, 保其身體; 傅, 傅之德義; 師, 道之教訓, 三公之職也. 於是爲置三少, 皆上大夫也. 曰少保, 少傅, 少師是與太子燕者也.

다. 그리고 다른 말로 三師라고 하여, 이 역시 태자를 가르치는 직책으로 太師, 太傅, 少保를 일컫었다. 여기서 ‘師’는 교화를 하는 것이고, ‘傅’는 덕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保’는 신체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近思錄·治法篇》에서는 “태자의 師, 傅, 保의 관직에 대해 삼대의 시대에는 임금에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太師, 太傅, 太保의 관직이 반드시 있었다. 師는 도로서 교훈을 가르쳤고 傅는 도우는 것을 德義로 하였으며 保는 몸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였다.”고 했다.²⁰⁾ 그러나 한대에 이르러서는 태자 태부와 태자 소부라는 두 개의 관직을 두고, 그밖에 사와 보는 두지 않았다.

한나라를 세운 劉邦은 천하를 쟁취한 뒤 고조 9년(기원전 198년)에 秦나라 박사로 유가경전에 능한 叔孫通과 張良에게 태자의 태부, 소부의 직책을 각각 임명했다. 劉邦은 태자교육에 적극적이었다. 숙손통, 장량은 태자 사부를 3년 맡았는데 고조가 죽고, 태자(혜제)가 즉위하자 그 직책을 그만 두어 태자에 대한 교육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西漢 文帝에서 昭帝까지 10여 명이 태자의 태부, 소부를 맡았다.²¹⁾

사부의 직책 가운데 太師의 책임에 대하여 賈誼는 태자는 물론이고 천자에 대하여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천자가 옛 성인의 덕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기르는 도리를 알지 못하며 바른 예의를 보지 못하고 일에 대처하는 이치를 살피지 못하며, 고대의 경전을 널리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거지를 위엄 있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며 《詩》, 《書》, 《禮》, 《樂》의 바른 뜻을 지키지 못하고 천자의 학업이 규정대로 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은 모두 태사의 책임이다.²²⁾

태자보다 권력과 영향이 절대적으로 큰 천자가 덕을 깨닫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도리를 지키게 하고, 예와 일처리 방법과 경전을 습득하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는 것에도 태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였다. 그러면서 천

20) 《近思錄·治法篇》: 三代之世人君必有師傅保之官。師道之教訓, 傅傳之德義, 保保其身體。
21) 周永衛, <略論漢代的皇族教育>, 《江蘇社會科學》, 2000年 第4期, 181頁。
22) 《新書·傳職》: 天子不諭於先聖人之德, 不知君國畜民之道, 不見禮義之正, 不察應事之理, 不博古之典傳, 不備於威儀之數, 詩書禮樂無經, 天子學業之不法, 凡此其屬太師之任也。

자가 태사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책임은 태부에게 있다고 하였다.

천자가 친척들에게 은덕을 베풀지 않고 백성들을 은혜롭게 대하지 않으며 대신들에게 무례하고 형벌과 옥사를 다루는 데 진실하지 않고 여러 관리들을 거느리는 데 기강이 없으며 장사를 치르면서 슬퍼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군사에 관한 일을 조심하지 않고 제후들에게 신의가 없으며 상벌을 다루는 데 진실하지 않으며 후덕하지 못하고 행실에 힘쓰지 않으며 주위의 가까운 신하들에게는 과도하게 선물을 주고 관계가 멀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인색하며 분노를 억제하거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며 큰 행실과 예법과 큰 도의에 대해 태사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모두 태부의 책임이다.²³⁾

태자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당시 실세인 천자를 보필하는 일이다. 천자의 보필은 여러 신하뿐만 아니라, 태부와 같은 선생도 천자의 역할을 보필하면서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선생은 태자에게나 천자에게나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賈誼는 太師는 도로서 교훈을 가르쳤지만 太傅는 덕으로 가르치는 것을 책임졌기에 덕과 관련된 일에서의 잘못과 그 책임은 태부에게 전가하였다.

태부는 주대에는 삼공의 하나였지만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고, 한대에 계승되어서는 직책만 존재하고 권력은 크게 없었다. 반면 동한에서 태자 소부는 태자의 관속들을 관리했다. 태자는 태부와 소부 앞에서 제자로서 예를 갖추어야 했고, 태자 소부는 태자에게 자신을 臣이라고 지칭했다. 반면 태자 태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²⁴⁾

태자의 사부는 태자의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태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책임지며 동궁관리의 수장역할을 했다. 또한 태자를 보호하는 보조역할도

23) 《新書·傳職》：天子不恩於親戚，不惠於庶民，無禮於大臣，不忠於刑獄，無經於百官，不哀於喪，不敬於祭，不誠於戎事，不信於諸侯，不誠於賞罰，不厚於德，不彊於行，賜予侈於左右近臣，錫授於疏遠卑賤，不能懲忿忘欲，大行大禮大義大道，不從太師之教，凡此其屬太傅之任也。

24) 왕정훈 지음, 이영옥 옮김, 앞의 쪽, 110쪽.

겸하였다. 즉, 태자를 지도하는 것이 첫째고, 태자를 보호하는 것이 두 번째의 역할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태자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부의 책임이었다. 그래서 賈誼는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덕과 지, 수양 및 사회적 작용을 높이 평가하였다.

왕이 임명하는 관원에는 여섯 가지의 등급이 있다. 첫째, 스승이요. 둘째, 벗이요. 셋째, 대신이요. 넷째, 近臣이요. 다섯째, 侍御요. 여섯째, 종이다. 지혜가 근본으로 삼을 만하고 행동이 본보기가 될 만하며, 물어보면 대담해주고 찾으려면 응대하며, 남의 가문에 들어가서는 그 가문을 존중하게 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를 존중받게 만들 수 있는 이를 스승이라 한다.²⁵⁾

이와 같이 교육의 상호활동 중 교육자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그 자신도 폭넓은 지식과 고상한 품격을 지니고 있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태자교육 및 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일에 대해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 중시되었으며, 이는 왕이 임명하였다. 이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지식 및 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야 했다.

3.2 師傅의 선발

《漢書·雋疏于薛平彭傳》에 “태자는 군주의 후계자이며 버금가는 군주입니다. 그 스승과 벗은 반드시 천하사람 중 빼어난 준걸이어야 합니다.”고 하였다.

26) 이것은 태자라는 자리의 중요함에 빚대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하여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자의 사부가 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師와 傅를 선발하는 것은 당연히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정의 많은 신하 가운데 품행이 단정하고 덕망이 높으며 학식

25) 《新書·官人》：王者官人有六等。一曰師，二曰友，三曰大臣，四曰左右，五曰侍御，六曰廝役。知足以爲源泉，行足以爲表儀。問焉則應，求焉則得。入人之家，足以重人之家，入人之國，足以重人之國者，謂之師。

26) 《漢書·雋疏于薛平彭傳》：太子國儲副君，師友必於天下英俊。

이 풍부하고 잘 가르치는 중신을 택하였다. 賈誼는 “천하의 단정한 士와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으며 식견이 넓으면서 지략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태자를 지키고 돕게 하며 거처하고 드나들도록 하였습니다.”²⁷⁾ 하였다. 태자를 가르치는 사부는 품행이 방정하고, 덕망이 높으며 학식이 깊은 당시의 이름 있는 인물 가운데 선발했음을 알 수 있다.

사부의 선발에 있어서는 지식보다 인품을 우선시했다. 한나라 景帝가 태자였을 때, 그의 아버지 文帝는 石奮을 태부로 삼았다. 武帝가 태자였을 때 그의 아버지 경제는 衛綰을 태부에 임명했다. 석분과 위관의 공통점은 학식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됨이 공손하고 분수를 지키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한나라 경제 때는 무제가 유가만을 존숭하기 전이었고, 黃老學의 영향으로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면서 통치하는 방식을 숭상했다. 태자의 스승을 선발할 때도 그 기준이 후보자가 문학(고대의 문학은 언어, 문자와 제자백가의 학문을 의미함)에 얼마나 정통한가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인품을 가졌는가에 있었다. 즉, 태자의 스승을 통해 문제와 경제는 태자에게 공손한 인품의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다.²⁸⁾ 또한 동한에서도 인품을 중시해서 선발했던 경우를 볼 수 있다. 光武帝가 태자 태부로 선발한 장일의 경우도 학문은 환영보다 한참 아래였고, 《後漢書·儒林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광무제는 조정에서 보여준 그의 언행을 높이 평가해서 태자 태부로 삼았다.²⁹⁾

그리고 강조된 것 가운데 하나가 유가 경전에 대한 지식이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장의 태자의 교육 내용에서 다루겠지만, 董仲舒의 獨尊儒術 이후 태자 사부를 뽑을 때는 앞서 언급한 돈독한 행실과 더불어 경전에 밝은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사부의 선발에는 정치력도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 태자교육에는 태자에게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황권을 강화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통치자의 의도도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 《漢書·賈誼傳》: 於是皆選天下之端士孝悌博聞有道術者以衛翼之, 使與太子居處出入。

28) 왕정훈 지음, 이영옥 옮김, 앞의 책, 81-83쪽.

29) 왕정훈 지음, 이영옥 옮김, 위의 책, 110쪽.

그래서 최고 통치자가 태자 사부라는 직책을 맡길 사람을 선발할 때는 황제에게 충을 강조하고 기타 재능을 조금 고려하기도 했다. 태자 사부는 학술이 없어도 충성하고 공신하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었는데 이는 통치자가 황권을 강화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서한 전기 태자 사부 교육제도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⁰⁾ 그러나 惠帝 이후 태자 사부의 교육은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다. 충성이라는 항목만으로 태자 사부라는 직책을 맡기 어려웠다.

태자 사부라는 직책을 뽑을 때 ‘충직하고 공신한 것’에서 ‘경에 밝고 돈독한 행실’에 중점을 두고 덕을 중시하면서 재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태자 사부를 맡은 17명 중 장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두 학식이 박식한 저명한 학자가 맡았다.³¹⁾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가 경전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태자교육의 방식, 사부의 선발 방식과 위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동한시대에는 서한과 달리 태자의 태부, 소보의 직책이 유명무실해졌다. 군주교육은 서한의 사부제를 侍講制로(황제나 태자에게 강학함) 전환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상태에서 황제 혹은 태자면전에서 직접 경을 강의하고 수업하였다. 이러한 侍講制는 서한에 이미 있었다. 元帝 때 경학박사 鄭寬中은 태자에게 《尙書》와 《論語》를 가르쳤다. 그러나 동한 때 궁중교육이 완전히 侍講制로 바뀌면서, 왕위에 올라 계속 교육을 받던 태자중심의 교육은 황제 중심으로 바뀌었다. 결국 侍講制는 사부제를 대신했는데 그 의미는 매우 깊다. 궁전에 들어간 시강자는 대부분 낮은 관리가 맡았다. 사부제의 핵심이 사생관계였다면, 侍講制의 핵심은 군신관계이다. 군신관계가 사생관계를 대신해서 황권이 군권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³²⁾

태자의 사부에 대한 권위와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사부에 대한 존경심은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일체라는 君師父一體처럼 태자와 황제의 존경을

30) 周永衛, 앞의 논문, 181頁.

31) 周永衛, 위의 논문, 182頁.

32) 周永衛, 위의 논문, 182頁.

받았다. 예를 들어 한나라 元帝 劉奭이 여덟 살에 태자가 되어 18년간 태자로 지내는 동안 사부가 여러 번 교체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숙질관계인 蹠廣과 蹠受 두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유석의 사부를 맡았다. 《漢書·雋疏于薛平彭傳》에 “황제는 그들이 나이가 많은 노인임을 고려하여 은퇴를 허락하고 그 위에 황금 20근을 하사했고, 황태자도 황금 50근을 선물했다. 공경대부, 친우와 동향 사람들이 東都門 밖에 차일을 치고 송별연을 베풀었는데 전송하는 사람의 수레가 수백 량이었다. 소광과 소수는 전송객과 인사를 나누고 떠났는데 길 위로 나와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어질도다! 두 분의 대부여!’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³³⁾ 하였다. 소광과 소수가 태부와 소부에서 물러날 때 황제가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자를 가르치는 사부는 시대에 따라 그 권한과 대우가 달랐지만, 사부와 태자의 관계는 특별하였다. 비록 그들의 지위가 높지 않아도, 이들은 태자가 즉위할 경우 조종에 중용될 미래의 권력이기에 이들의 선발과 처우에 신중하였다.

4. 한대 太子의 교육내용

4.1 太子교육의 중요성

태자는 미래에 황권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따라서 태자를 위한 사부의 선발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상당히 중시되었다. 특히 賈誼는 《新書》를 통해 태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漢書·雋疏于薛平彭傳》：廣遂稱篤，上疏乞骸骨。上以其年篤老，皆許之，加賜黃金二十斤，皇太子贈以五十斤。公卿大夫故人邑子設祖道，供張東都門外，送者車數百兩，辭決而去。及道路觀者皆曰，“賢哉二大夫!”或歎息爲之下泣。

천하의 명운은 태자에게 달려있고 태자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교육과 좌우에서 보필하는 인재를 잘 뽑는데 달려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어지러 위치기 전에 먼저 타이르고 가르치면 교화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학문과 지략을 개발하고 정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 모두 교육의 공입니다. ... 제대로 교육하고 좌우에 있는 보좌가 올바르면 태자는 올바르게 될 것이며 태자가 올바르면 천하가 안정될 것입니다.³⁴⁾

賈誼는 태자교육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태자를 잘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태자교육을 국가 존망의 대계로 국가를 장기적으로 다스리는 관건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태자교육의 중요성을 분석했는데 삼대가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태자교육을 중시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태자교육의 체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賈誼는 《學禮》의 말을 인용하여 은과 주나라가 오랫동안 천도를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을 제왕이 받은 교육에서 찾았다.

《學禮》에 이르기를 "제왕이 東學에 들어가 친족을 높이고, 인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면 親疎에 순서가 있고 은덕을 서로 베풀게 된다. 제왕이 남학에 들어가 어른을 존중하고 신의를 귀히 여기게 되면 어른과 어린이의 차별이 있게 되면 백성들이 속이지 않게 된다. 제왕이 서학에 들어가 현인을 높이고 덕을 귀히 여기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관직에 있게 되어 아랫사람이 넘보지 않게 된다. 제왕이 태학에 들어가 스승을 따라 도를 물으며 물러 나와서는 배운 것을 익혀 태부에게 시험을 받는다. 태부는 제대로 본받지 못한 점은 벌하고 미치지 못한 점은 바로 잡아주니 덕과 지혜가 자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터득하게 된다. 이 다섯 가지의 배움이 제왕에게서 이루어지면 아래에 있는 백관들과 백성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화목하게 교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문이 완성되어 다스림이 성취된 것이니, 이것이 은나라와 주나라가 오래도록 천도를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³⁵⁾

34) 《新書·保傳》: 天下之命, 縣於太子. 太子之善, 在於蚤諭教與選左右. 心未濫而先諭教, 則化易成也. 夫關於道術, 知義之指, 則教之功也. ... 夫教得而左右正, 則太子正矣, 太子正而天下定矣. 이 내용은 《漢書·賈誼傳》에서도 볼 수 있다.

35) 《新書·保傳》: 《學禮》曰, "帝入東學, 上親而貴仁, 則親疏有序, 而恩相及矣. 帝入南學, 上齒而貴信, 則長幼有差, 而民不誣矣. 帝入西學, 上賢而貴德, 則聖智在位, 而功不遺

반면에 賈誼는 秦나라가 빨리 망한 것은 태자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賈誼의 군주교육사상은 중국 역대 봉건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은 황위 계승자를 배양하고 품성이 바르고 백성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군주를 배양하는 것으로 여겨 이때부터 역대 봉건왕조는 태자교육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태자교육을 중시한 한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학교교육과 치국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했다. 賈誼는 교육은 국가의 정치 경제발전에 모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며 학교교육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전국의 각 관리자의 소질이 향상되고 국가정치가 안정되며 백성들은 비로소 인의예악을 알게 되어 사회경제가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4.2 太子의 교육내용

중국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별로 숭상한 학술사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태자들이 영향 받았던 사상과 태자들이 비중 있게 읽었던 책도 동일할 수 없다. 이는 조선시대와 비슷하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이 유가사상으로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서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실교육도 유가경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대든 조선시대든 통치자들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통치사상을 교육의 중심내용으로 삼았다. 이는 통치자들이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통치자 양성교육을 그만큼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대별 태자의 교육내용을 보면 그 시대의 통치이념을 알 수 있다.

《周禮》에 따르면 주대에는 師氏와 保氏로 나누어 태자의 교육을 진행하였

矣。帝入北學，上貴而尊爵，則貴賤有等，而下不踰矣。帝入太學，承師問道，退習而考於太傅，太傅罰其不則，而匡其不及，則德智長而治道得矣。”此五學者，既成於上，則百姓黎民化輯於下矣。學成治就，是殷周所以長有道也。

고, 각각의 역할과 교육내용이 구분되었다. 사씨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師氏는 삼덕으로 國子를 가르친다. 첫째는 至德인데 도를 근본으로 삼는다. 둘째는 敏德인데 행동을 근본으로 삼는다. 셋째는 孝德인데 거스르는 일은 나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세 가지 행동을 가르친다. 첫째는 孝行으로 부모를 가까이 모시는 일이다. 둘째는 友行으로 어질고 능력 있는 이를 높이는 일이다. 셋째는 順行으로 스승과 어른을 섬기는 일이다.³⁶⁾

사씨는 임금의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덕 즉 至德, 敏德, 孝德을 가르치고 삼행 즉 孝行, 友行, 順行을 가르쳤다. 《周禮》에 따르면 보씨는 임금의 잘못된 점을 간하고 국자를 도로써 양성하는데 힘썼는데 육예를 가르쳤다.

保氏는 왕의 나쁜 점을 간하고 국자를 도로써 양성하여 六藝를 가르치는 일을 관장한다. 첫째는 五禮이며, 둘째는 六樂이며 셋째는 五射이며, 넷째는 五馭이며 다섯째는 六書이며 여섯째는 九數다.³⁷⁾

이로 미루어 주대에는 師氏와 保氏라는 전문적인 직책과 역할을 두어서 태자에 대한 교육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자의 학식과 도덕적 소질은 그 장래에 치국방침과 상당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 속에 주대 이후의 태자교육은 중시를 받았다.

秦代의 경우는 주대와 다르게 태자를 교육하였다. 《韓非子·五蠹篇》에 “현명한 군주의 나라에서는 책에 쓰인 글이 없고 법만을 가르침으로 삼으며 선왕의 말은 없고 관리만을 스승으로 삼으며 개인의 칼부림은 없고 목을 베는 것만을 용맹으로 삼는다.”고³⁸⁾ 했듯이 한나라 이전 진나라는 법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후손들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법을 좋아한

36) 《周禮·地官司徒》: 師氏以三德教國子, 一曰至德, 以爲道本, 二曰敏德, 以爲行本, 三曰孝德, 以知惡逆. 教三行: 一曰孝行, 以親父母; 二曰友行, 以尊賢良; 三曰順行, 以事師長.

37) 《周禮·地官司徒》: 保氏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 乃教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

38) 《韓非子·五蠹》: 故明主之國, 無書簡之文, 以法爲教, 無先王之語, 以吏爲師, 無私劍之, 以斬首爲勇.

진나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한대의 경우는 주대나 진대와 달리 유가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자연스럽게 교육에 있어서도 유가경전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한나라 초기 무제이전 60여 년 동안은 黃老思想을 비롯하여 刑名之學과 陰陽五行이 중심을 이루고 유학은 그다지 중시를 받지 못하였다. 《史記·禮書》를 보면 “효문제가 즉위하고 담당관이 상소를 올려 의례를 정하러 했으나 효문제가 도가의 학문을 좋아해 예를 번다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이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 그것을 버렸다.”고³⁹⁾ 하였다.

한무제는 유교를 숭상하여 오경박사를 설치하고 유가경학은 통치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한대의 유학화는 군주교육에서도 나타났다. 전제주의 제도아래에서 군주는 천하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그 학식과 도덕수준은 봉건왕조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孟子는 “군주가 인하면 인하지 않은 이가 없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이가 없다.”고⁴⁰⁾ 하였다. 그러므로 한대에는 군주에 대한 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로 자연스럽게 유가의 경전은 태자의 필독서가 되었고, 經師는 제왕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한대의 經師는 주로 태자 태부 혹은 태자 소부의 직책을 맡았다. 한무제 이후 태자교육은 더 완비되었는데 이때 유가경전이 태자교육의 중요내용이 되어 태자의 사부도 유가에 정통한 학자가 되었다. 유학의 경학화는 한대에 시작하여 학문과 수양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儒者는 고대 지식인의 대명사가 되었고, 유학은 교육에 있어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⁴¹⁾ 그래서 유학은 교육의 실천 방면에서나 교육의 이론 방면에서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놓였다. 더 나아가 황족과 외척의 유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한대에는 제후왕에게도 사부를 배치하였다.

태자의 교육에 더하여 황제 또한 유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태자 면전에서 유

39) 《史記·禮書》: 孝文即位, 有司議欲定儀禮, 孝文好道家之學, 以爲繁禮飾貌, 無益於治, ... 故罷去之.

40) 《孟子·離婁下》: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41) 俞啓定, 《先秦兩漢儒家教育》(濟南: 齊魯書社, 1987, 92쪽).

가경전을 강의하도록 하였다. 한대의 많은 황제들은 유학을 숭상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유학의 뜻에 따라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치는 일을 중시하였다. 漢武帝, 漢元帝, 光武帝, 漢明帝, 漢章帝, 漢靈帝, 漢獻帝 등은 모두 유학을 숭상하고 배움을 좋아한 전형이다.

중국의 태자가 받았던 교육에서 태자가 읽었던 필독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연계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 윗사람과 아래 사람의 역할, 부모의 도,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른 질서를 공부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로 《周禮》, 《禮記》, 《論語》, 《孝經》 등을 읽었다. 둘째, 역대 국가의 혼란과 흥망성쇠를 설명하여 그 성패득실의 도를 공부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尚書》, 《春秋》, 《漢書》, 《資治通鑑》 등을 읽었다. 셋째, 통치자가 천하를 다스린 책략을 기록하는 것으로 치국용병의 도를 공부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老子》, 《六韜》, 《管子》, 《商君書》, 《甲子》, 《韓非子》 등을 읽었다. 이상의 교육 내용과 관련 서적은 태자가 즉위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 매우 중요한 책이다.⁴²⁾

또한 황제가 직접 태자의 교육에 관여하여 태자를 위한 교육 지침서를 만들게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자를 비롯한 황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宣帝는 夏侯勝이 수업하는 동안 그에게 《尚書》와 《論語》의 길잡이용 책을 저술하게 했고, 각각 《尚書說》과 《論語說》이라 명명했다. 이 두 책은 夏侯勝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없는 황족의 자제들에게도 활용할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선제도 당연히 정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그 책들을 읽을 생각이었다. 그도 어렸을 때 《尚書》와 《論語》를 배운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⁴³⁾

한대 왕조의 태자교육에 대하여 韓仲秋가 각 황제별로 평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한의 태자교육은 景帝, 武帝, 元帝, 成帝 때 잘 드러났는데 이들은 모두 태자로 있는 시간이 비교적 길었고 교육도 비교적 체계적이었다.

42) 安作璋, 秦永州, 앞의 논문, 5-6頁.

43) 왕정훈 지음, 이영옥 옮김, 앞의 책, 94쪽.

그래서 태자교육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도 컸다. 文帝, 哀帝가 받은 교육은 주로 그들이 제후왕 때 받은 것이고 惠帝, 昭帝는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황제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태자교육의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宣帝는 민간에서 교육을 받았다. 동한의 태자교육은 明帝, 章帝에 이르러 비교적 효과가 있었으며 그들은 비교적 체계적인 태자교육을 받았고 비교적 높은 문화수양과 治國理政의 능력을 잘 갖추어 동한초기의 정국안정을 이끌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安帝, 順帝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 기본적인 지식소양과 행정능력을 훈련받았고 沖帝, 質帝는 유년시절에 왕위를 계승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桓帝, 靈帝는 河間孝王의 손자, 증손이고 그밖에 외척 등의 자손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교육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지식과 품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桓帝, 靈帝가 대권을 잡은 후 조정이 부패하여 동한의 쇠퇴와 멸망을 가져왔으며 이로써 왕위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⁴⁴⁾

이와 같이 한대에는 유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魏晉시대에는 玄學이 성행하여 《老子》, 《莊子》, 《周易》을 태자의 필독서로 삼았고, 16국의 난세에는 태자들이 병서를 읽도록 했으며,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가 흥행하여 梁武帝는 태자들에게 불교를 직접 강의하고 불교 경전을 읽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대별로 태자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역대의 제왕들은 태자의 교육, 배양을 중시하였으며 태자를 선발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시대마다 태자에게 가르친 교육내용은 다소 달랐지만 유가가 정치사상으로 자리를 잡은 한대 이후에는 태자의 교육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유가의 사상과 경전이 있었다.

44) 韓仲秋, 韓仲秋, <論漢代皇族教育>, 《蘭台世界》, 2012年 11, 50頁.

5. 맺음말

지금까지 한대의 태자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대상인 태자의 책봉과정을 알아보았다. 태자 책봉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으며 책봉이 된다하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책봉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위협도 상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태자의 자리가 미래의 권력이라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그랬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제 개인의 소질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황제 및 그 계승자인 태자를 위한 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秦의 천하통일 이후 정치적으로 황제의 자리가 공고해진 한대에 이르러서는 태자교육을 더욱 중시하였다.

태자의 사부는 다양한 직책과 구분이 있었고, 시대에 따라 지위가 변하였다. 물론 중요한 자리이기에 그 선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였다. 태자는 한대 초기에는 黃老學의 영향으로 도가와 법가 사상의 내용을 비롯하여 폭넓게 공부하였다면, 한무제 이후 獨尊儒術 속에 유가의 경전과 사상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한대는 중국 역사에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시기로 한국의 조선시대와 비교해보았을 때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은 시기이다. 예를 들어 유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는 것과 태자의 교육을 역대 어느 왕조보다 중시하였다는 것 등에서 그렇다. 청대 이후 시대와 왕조의 영향을 받아 태자의 교육내용도 불교의 학문이나 老莊의 학문 등의 내용이 태자교육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 중심에는 중국 통치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유가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정치적 목적, 국가의 이념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교육이 교육만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교육의 본래 의미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유가 이념이 통치사상이었던 한대는 물론이고 이후 송대까지 이러한 이념과 사상은 교육에 있어 가

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과거처럼 유가사상, 노자사상 등 특정사상이 한 시대를 오랫동안 지배하지는 않지만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태자교육이 아닌 일반 서민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중시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육과 국가는 서로 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 교육을 발전시키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杜佑, 《通典》(校定本), 北京: 中華書局, 1998.
-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2.
- 賈誼選, 閻振益, 鍾夏校注, 《新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0.
- 范曄, 《后漢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王先慎, 《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8.
- 孫詒讓,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
- 朱熹·呂祖謙, 張京華 注釋, 《近思錄》, 湖南: 岳麓書社, 2010.
- 楊伯峻,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95.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皮錫瑞, 《經學歷史》, 北京: 中華書局, 1959.
- 賈誼지음, 박미라 옮김, 《신서》, 서울: 소명출판, 2007.
- 반고, 신정근 역주, 《백호통의》, 서울: 소명출판, 2005.
- 安作璋, 秦永州, <東宮制度考述>, 《山東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86年 第4期.
- 왕징룬 지음, 이영옥 옮김, 《중국의 황태자 교육》, 파주: 김영사, 2007.
- 熊承滄, 中國古代學校教材研究,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96.
- 兪啓定, 《先秦兩漢儒家教育》, 濟南: 齊魯書社, 1987.
- 이경자, <漢代的 孝教育 연구>, 《教育問題研究》, 2005.
- 이경자, <漢代《孝經》 보급의 교육적 의의>, 《教育問題研究》, 2009.
- 이경자, <中國 漢代的 太學教育 연구>, 《比較教育研究》, 2006.

- 鄭舜英, 《兩漢教育制度史資料》,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 趙連穩, 朱耀延, 《中國古代的學校, 書院及其刻書研究》,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7.
- 周永衛, <略論漢代的皇族教育>, 《江蘇社會科學》, 2000年 第4期.
- 朱慈堯, 張新濟, 張新羽(1987), <中國東宮制度考析>,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87年 第3期.
- 陳新崗, <試論兩漢諸子的學校教育思想>, 《孔子研究》, 2005年 第3期.
- 郝建平, <試論漢初的教育思想>, 《西南師大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
- 郝建平, <漢代的皇族教育芻議>, 《河南科技大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年 第6期.
- 韓仲秋, <論漢代皇族教育>, 《蘭台世界》, 2012年 11.

< Abstract >

The prince refers to the person who inherits the throne. In China, the prince was called the Donggung(東宮, the east Palace), Seja(世子, the boy), Jeogun(the second man, 儲君), Hwangieo(the second kingship), gunsa(君嗣, the military kingship), and the Jeonha(殿下, His Highness). But the Han Dynasty called it the Crown Prince. Looking at the dynasty by the era of China, teachers of the Crown Prince in the future for those who will become kings was placed mainly taught the adequate scheme to the circumstances of that times. The Han-dynasty is a country that has adopted Confucianism as its governing ideology. Therefore, the content of the Prince's education also have valuable scriptures with these governance ideology. In this research, I examined how the Crown Prince was handed over, how Tebu(太傅) and Sobu(少傅) who were in charge of their education were selected and what they taught to the prince. This will show how the imperial education in China has developed in the past and how it can be brought to bear.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prince, I hope that it will be a chance to think about more practical alternative through the building of the top elite education of the time and the education of the nobility.

Key words: Han Dynasty, prince, Tebu(太傅), Sobo(少傅), edu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1. 31.	2017. 02. 27.	2017. 03. 01.	2017. 03. 02.	2017. 03. 31.